

괴델증의 만연

앨런 소칼, 장 브리크몽의 《지적 사기》를 읽고

서평자 | 케번 멀리건 · 제네바대학 철학 교수
출전 |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98년 6월 20일자

프랑스의 최신 철학을 공격한

소칼과 브리크몽의 《지적 사기》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권위 있는 서평지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지가 이 책의 서평을 실어 눈길을 끈다. 제네바 대학의 멀리건 교수는 이 서평에서 소칼과 브리크몽이 변변한 대중과학서 하나 들춰보지 않은 철학자들의 게으름에 분통을 터뜨리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의 구름판에서 설블리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뛰어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포스트모던 사상을 패러디한 논문을 〈소셜 텍스트〉지에 투고한 앨런 소칼과 장 브리크몽은 이 짓곳은 실험의 성공에 고무받아 지성과 윤리의 정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복미의 포스트모더니즘 열기에 실망한 그들은 《지적 사기 *Impostures Intellectuelles*》에서 이 현상의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하나는 최근 프랑스 사상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분석철학 분야의 상대주의 조류다.

과학용어에 기생하는 프랑스 질환

프랑스 사상이 나타내는 증세는 실로 다양하다. 자크 라캉은 위상학의 기본 구조가 정신병의 구조를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루스 이리가라이는 $E=mc^2$ 이 성에 몰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장 보드리야르는 “유클리드의 역사 공간에서 한 점과 또 한 점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는 직선, 곧 진보와 민주주의의 선이지만, 이것은 계몽주의의 선형적 공간에서만 타당하다. 우리의 세기말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하나의 악의 곡률은 모든 궤도로 거침없이 발산한다”고 주장한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에 따르면 철학과 과학의 차이는 카오스에 대한 상이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카오스는 “무질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가 흩어지는 엄청난 속도로서 정의된다. 그것은 비어 있지만 무가 아니

라 가상의 것이며, 모든 가능한 입자를 담고 있으며 일관성도 맥락도 반향도 없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든 가능한 형태를 유발한다. 그것은 탄생과 소멸의 무한 속도다.

철학은 어떻게 무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가상적인 것에 고유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관성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는다.” 레지스 드브레가 보는 사회의 본질은 이렇다. “집단적 불행의 ‘비밀’은, 다시 말해서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정치사의 선험적 조건은 아주 간단한 몇 마디로 요약된다… 그것은 괴델의 정리를 일반화한 논리적 법칙이다. 열린 계는

결코 체계적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계도 그 계에 속한 요소들만으로는 닫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칼과 브리크몽에 따르면 이들은 과학적 개념들의 침묵에는 관심이 없고 그 개념들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노린다. 괴델증이라고 일컬을 만한 일군의 질병이 만연해 있다. 오늘날 물리학·논리학·수학의 술한 주제에는 그 주제에 고유한 어휘에 기생하는 뚜렷한 프랑스 질환이 대응한다. 이 병의 주요 증세는 관련어의 일부를 미구잡이로 되빨는 습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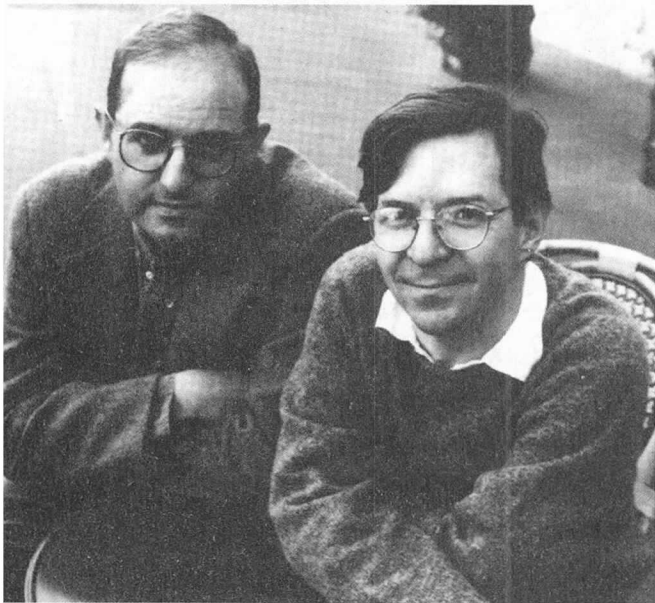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한편으로 과학철학 내부의 토착 기류에 의존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소칼과 브리크몽은 쿤, 파이어라벤트가 고무했고 포퍼의 과학철학에 뿌리를 둔 인식론적 상대주의와, 최근의 과학사회학에서 탐지되는 상대주의도 비판한다. 우리가 과학적 진리를 믿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경험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일상생활의 합리성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상대주의를 부정하려면 일상생활의 모든 지식까지도 부정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지식은 그대로 두면서 과학적 진리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프랑스 때리기의 전형적인 반응

프랑스 텍스트의 철학적 배경은 이른바 ‘대륙 철학’이다. 이 거대하고 다양한 전통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흐름이 있으니 그것은 독일의 딜타이에서 시작해 후기 후설,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전통이다. 이 전통은 이론적 구도로서의 철학과 결별한다. 자연히 설명, 구분, 정당화, 반론 같은 전통적 이론 기구를 경시한다. 대륙 철학은 상대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재론에 대한 적대감에 가깝다.

상대주의란 것도 결국은 명제나 이론의 진리 여부에 대한 견해지만, 하이데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으뜸 가는 처소는 명제나 부랑이가 아니다. 실재론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말하는 ‘반실재론’ 같은 모든 철학적 입장이 그렇듯이 적절한 이론적 양식으로 옹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륙 철학에서는 비이론적 또는 반이론적 글쓰기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자기현시적, 수사학적, 암시적, 성인승배적, 강령적, 은유적인 문체가 성행한다.

대륙 철학의 제도적 배경 또한 특이하다. 소칼과



《지적 사기》의 저자 앨런 소칼(오른쪽)과 장 브리크몽.

브리크몽이 다루는 철학자와 사상가는 현대 프랑스 철학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수가 거기서는 철학이 아니라 철학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랑스 대학에서 철학과 인문학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연과학의 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전에도 줄리앙 방다, 루이 루지에, 장 프랑수아 르벨, 자크 부베레스가 프랑스 철학을 공격한 적이 있지만 프랑스의 최신 철학의 한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소칼과 브리크몽이 처음이고 아마도 그 점이 더욱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프랑스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저자들의 책에 대해서 '프랑스 때리기'라는 전형적 반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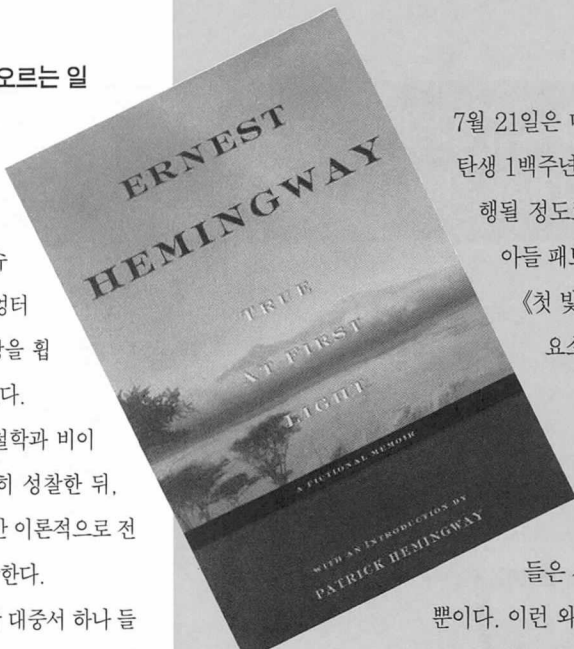
과학의 구름판에 끝까지 뛰어오르는 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이 비판자들의 선배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로베르트 무질이 있다. 무질은 1921년에 슈펜글러의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엉터리 발언을 해부해 당시 독일 사상을 휩쓸던 비합리주의의 일각을 드러냈다.

무질은 이론적 구상으로서의 철학과 비이론적 구상으로서의 철학을 면밀히 성찰한 뒤, 후자도 전자 못지 않게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전자에 뒤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소칼과 브리크몽이 변변한 과학 대중서 하나 들춰보지 않은 철학자들의 게으름에 분통을 터뜨릴 때, 소설가 무질은 중요한 것은 "과학의 구름판에서 선불리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뛰어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버틀랜드 러셀은 진리는 우리가 좌우하지 못하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관념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광기를 향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무질도 1937년에 쓴 <어리석음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당시의 지식 풍토를 질타했다. "중요한 관념 치고 어리석음이 씨먹을 줄 모르는 것은 없다. 어리석음은 사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진리의 옷들로 치장할 수 있다. 반면에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 옷을 입고 한 길로 가며, 그래서 언제나 불리하다." ●



《첫 빛의 진실》
어네스트 헤밍웨이 지음,
패트릭 헤밍웨이 편집

거장이 들려주는 자전적 이야기

헤밍웨이의 마지막 미발표 소설



탄생 1백주년을 맞아 헤밍웨이의 미발표 소설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7월 21일은 미국작가 중 대중적인 지명도가 가장 높았던 어네스트 헤밍웨이 탄생 1백주년이다. 작품에 대한 관심과 작가에 대한 관심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정도로 헤밍웨이는 대중스타처럼 여겨진 작가였다. 1백주년을 맞아 아들 패트릭 헤밍웨이가 두 배 분량의 원고를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첫 빛의 진실(True at First Light)》(스크리브너, 320면)은 자전적 요소와 소설적 요소가 뒤엉킨, 헤밍웨이의 마지막 미발표소설이다.

'소설적 회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백인들에 대한 마우마우족의 반란이 시작되던 1953년 겨울, 케냐의 사파리캠프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다. 당시 헤밍웨이는 네번째 아내이자,

마지막 삶의 동반자였던 메어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키려 하나 결혼생활은 점점 더 망가질

뿐이다. 이런 와중에 메어리는 검은 갈기를 가진 사자를 사냥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냥에 몰두하고 헤밍웨이는 데바라는 아프리카 소녀와 사랑에 빠진다. 표면적인 내러티브는 위와 같지만, 헤밍웨이의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헤밍웨이만의 독특한 문체, 묘사, 시각 등이다. 도입부의 "아프리카에서 모든 사물은 첫 빛이 비칠 무렵에는 진실이었다가 정오가 가까워지면 거짓이 된다"는 문장에서 따온 제목처럼 소설 전반에 걸쳐 변화의 덧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회색 안개 속에 잠긴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 지평선을 따라 움직이는 얼룩말과 가젤 영양, 하이애나의 울음소리로 길게 찢어지는 아프리카의 서늘한 밤 등 그만의 독특한 묘사가 눈에 띈다.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와 《무기여 잘있거라》 같은 헤밍웨이의 대표작과 함께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기를 쓰지 않은 헤밍웨이의 깊은 속내를 그만의 문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1백주년을 맞아 출간되는 이 소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평이다.

—김연수기자